

PEOPLE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한전 광주전남본부

96개소 전력분야 집중안전점검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두 달여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함께 참여해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사고 시 파급 영향이 큰 중요설비인 변전소(한빛원자력 S/Y 외 4개소) 및 송전선로(신광주-한빛NP 외 9개소)와 일반인 피해가 큰 중요시설 공급 배전선로(75개소), 일반인 안전사고 발생 우려 건설현장 및 사육설비(6개소) 총 96개소의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나주변전소 내 과열진단과 같은 설비점검뿐만 아니라 사면점검, 응벽붕괴여부 등 종합적으로 작업장 직관적 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을 추가로 발굴하는 기관합동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평소 전력설비에 관심이 있는 광주·전남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점검참관단을 모집해 화정동 지하복합변전소 설비점검을 참관하는 등 점검활동도 벌였다.

한병준 한전 광주전남본부장은 “생활 속 안전 유해요소를 발견한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민 생활에 필수요소인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정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대병원-에이아이메드㈜

항산화 향기 활용 스트레스 완화

전남대학교병원이 세계 최초로 향기 분자를 이용한 디지털 스트레스 완화의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은 최근 에이아이메드㈜와 병원 시너지코스메티케어실증센터 회의실에서 ‘항산화 향기 기반 중재기기의 다학제적 (전) 임상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세계 최초로 향기 분자를 공기 매개로 피부·점막·호흡기 등 체내에 전달한 뒤 눈 피로, 수면 장애, 뇌 신경 노화 등 디지털 스트레스 증상 완화 효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프로젝트다.

전남대병원은 항산화 향기 기반 중재기기를 개발한 에이아이메드와 디지털 환경에서 생리적 회복 효과 증진을 위한 협력과 동물실험·임상시험을 공동 수행한다.

해당 임상시험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 전남도, 충남도가 지원하고 전남대가 주관한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구축 사업·공동 연구책임자 윤경철 교수)과 연계해 진행된다.

윤경철 교수는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 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이 실제 임상시험과 산업화로 연계되는 만큼 이번 사업은 매우 유의미하다”며 “AI 기반 항산화 향기 중재기기와 같은 융복합 기술군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를 이끄는 전략적 분야로, 관련 산업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 도시 광양’ 만든다

광양어린이보육재단, ‘보육사랑 100인 기부 릴레이’ 캠페인 눈길

시민 29명·기업 등 참여...한 달 만에 후원금 1억6000만원 기탁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 도시 광양’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의 ‘보육사랑 100인+ 기부 릴레이’ 캠페인이 지역 사회의 뜨거운 관심 속에 한 달 만에 29명의 시민과 기업이 참여해 1억6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17일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에 따르면 경기 침체 등으로 기존 CMS 후원금이 감소하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지난달 12일부터 ‘보육사랑 100인+ 기부 릴레이’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기탁식을 통해 총 1억6007만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첫 기탁식에서는 5907만원(4명)을, 2회 기탁식에선 5700만원(10명), 3회 기탁식에서는 2000만원(6명)을 각각 기탁했다. 지난 12일 열린 4번째 기탁식에서는 9명이 총 2400만원을 후원했다. 이 자리에는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가 1000만원, 광양병원(원장 김철호) 300만

원, ㈜에이블탑(대표 김건일) 300만원, 광양시 산림조합(조합장 송백섭) 100만원, 삼대광양불고기집(대표 이형중) 200만원, 개인 기부자 유재하·이상민·박선찬 씨가 각각 100만원씩을 기부했다.

‘보육사랑 100인+ 기부 릴레이’는 100명이 10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캠페인으로, 초기 목표액은 1억원이었다.

하지만 어린이 보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활발한 기부 참여 덕분에 최근 목표액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지역사회의 열기는 광양시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육재단을 설립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미래 꿈나무 육성에 힘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사회가 미래 세대인 어린이 보육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광웅 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은 “보육사랑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의 ‘보육사랑 100인+ 기부 릴레이’ 캠페인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 속에 한 달 만에 29명의 시민과 기업이 참여해 1억6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사진은 지난 12일 열린 4번째 기탁식 모습.

기부 릴레이에 따뜻한 관심과 기부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육 사업을 위한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설립된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연간 약 13억원의 사업비로 쌍둥이 안심 단체보험 가입, 어린이 1인 1악기 예술교육 지원, 특수 장애아동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 보육시설 장난

감 세척 및 소독 지원, 질병 감염 아동 무료 돌봄 서비스,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어린이 체형 프로그램 지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졸업 사진비 지원 등 다양한 보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양시는 매년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나머지 8억원의 지역사회 후원금으로 총당해 재단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광주창경센터, 글로벌 비즈니스 빌드업 교육

예비창업자 역량진단...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예비창업패키지 선정자를 대상으로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빌드업 교육’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 ‘글로벌 비즈니스 빌드업 교육’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첫걸음을 내딛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기업가 정신, 사업비 집행 실무 교육 등 창업 기초 교육과 함께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그룹 멘토링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술 기반 아이템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역량진단(해외·내수형)을 통해 빠르게 타겟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투자·경영·재무·창업 등 분야별 전문가와의 1대1 멘토링을 지원했다.

‘글로벌 비즈니스 빌드업 교육’을 시작으로, 광주창경센터는 MVP 시제품제작을 위한 기술컨설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투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IP 역량강화캠프 등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시장반응을 검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예비창업패키지 선정자를 대상으로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빌드업 교육’을 개최했다.

광주창경센터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예비창업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진출 역량을 확인해 글로벌 진출 전기를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

망 창업기업이 글로벌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해 해외진출 성공사례 창출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전남 산림조합, 곡성삼강원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운영·주변 환경 정화활동

광주·전남지역 산림조합은 최근 곡성군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곡성삼강원에서 독박봉사단과 곡성군산림조합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도 2분기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독박봉사단은 회원조합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결성된 봉사단이다.

산림경영지도원들이 중심이 돼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1분기에는 장성 축령산 정화활동을 시작으로 산불예방 캠페인, 환경정화 등 광주·전남 전역을 순회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2분기 활동에서는 곡성삼강원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시설 주변 환경 정화활동이 진행됐다.

봉사단원들은 각자의 재능을 살린 봉사를 통해 시설 이용자와 교감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곡섭 곡성군산림조합장은 “독박봉사단의 사회공헌활동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생필품도 함께 후원했다.

한민 산림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산림경영지도원들의 재능이 지역사회 소의 이웃들을 위한 맞춤형 봉사로 더욱 다양하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동구,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협약 광주시 동구는 17일 점선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외식쿠폰 지원업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



서구 골목식당 주방장리 컨설턴트 발대식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17일 서구청 이음홀에서 열린 ‘골목식당 주방장리 컨설턴트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